

石洲集 국역 출판과 權韓先生

석주집

권필선생

(역자: 정민 교수,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심상지(沈尙志)의 유거(幽居)에 제하다 題沈尙志幽居

구석진 외론 마을 궁벽도 한데
 냇물 따라 한 줄기 길 비스듬하다.
 개인 날 버들은 빛깔을 띠고
 따뜻한 부들에선 새싹 돋는다.
 돌아가는 길손이 말 타러 하니
 주인이 불들고서 차를 달이네.
 계서(鷄黍)의 약속이야 사양 않지만
 복사꽃 때 놓칠까 걱정이라네.

特地孤村僻
 緣溪一徑斜
 柳暎纔弄色
 浦暖已抽芽
 歸客欲騎馬
 主人留煮茶
 不辭鷄黍約
 唯恐失桃花

봄이 다 가도록 비가 오지 않아 4월 초월에 짓다 春盡無雨 四月初吉 有作

가뭇이 올해엔 더욱 심하여
 어찌로 봄날은 끝이 났다네.
 제비가 집짓기도 어려움거니
 삼들엔 이끼도 돋지를 않네.
 입에 풀칠하기에도 늘 고단하니
 농사의 계획조차 어그러졌지.
 조각구름 비올 생각 조금도 없이
 하루 종일 맑은 해를 가리고 있네.

旱到今年甚
 春從昨夜歸
 燕泥難上甍
 蔕穉不成衣
 餬口身長困
 爲農計却非
 片雲無意緒
 終日掩清輝



우강 권이혁장관 에세이

의학의 기원

원래 의학은 고대의 종교로부터 파생한 것이라고 본다. 이미 기원전에 있었던 이집트·그리스·인도·중국 등의 고대문명에 관하여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러한 대문명의 배경에는 반드시 큰 종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종교(Religion)의 어원을 따져 보면 : 재(再)ligio: 잇는다: 에서 시작하고 있다. 즉 사람들을 다시 연결시킨다는 뜻이다. 도시를 만들고 문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결합되어야 한다. 한편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하느님(神)의 노여움, 악마의 장난, 악령(惡靈)의 장난 등 종교적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대처법도 신의 노여움을 푸는 것, 악마나 악령을 쫓는 것 등 종교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즉 의술과 주술(呪術). 초자연적 존재나 신비적인 힘을 빌려 고통을 점치고 회복을 비는 일이나 술법)은 뿌리가 같으며, 의술은 후에 주술에서 분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의 가치가 떨어진다. 예컨대 상업의 발달에 의해서 형이상(形而上)의 가치보다 현세(現世) 이익(利益)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등이 그 요인으로 생각된다. 어쨌든 탈종교화가 생긴 후어야 의학이 등장한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살펴본다면 의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교의 존재가 있어야 하며, 종교가 없는 의학은 성립되지 않는다. 역사를 만들고 문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결합되어야 한다. 한편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하느님(神)의 노여움, 악마의 장난, 악령(惡靈)의 장난 등 종교적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대처법도 신의 노여움을 푸는 것, 악마나 악령을 쫓는 것 등 종교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즉 의술과 주술(呪術). 초자연적 존재나 신비적인 힘을 빌려 고통을 점치고 회복을 비는 일이나 술법)은 뿌리가 같으며, 의술은 후에 주술에서 분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초기의 고대의학에는 주술의 색깔이 농후했으며 종교와 의학의 분리가 결코 명료하지 않았다. 한편 실제로 의술을 실시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었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문에도 있는 바와 같이 체내의 결석을 제거하는 수술인 쇄석술 등에서도 실패가 많았으며, 따라서 위험하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었다. 또한 복용한 약초가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원시적 수술의 실수 때문에 환자가 사망하는 예가 있었다는 것은 의학이 시작할 때부터 어느 정도 실현

이 실시되었다는 증거가 된다. 이들은 시행착오라고 해석되지만, 엄밀하게는 일종의 치료 실험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후의 의학은 그러한 실패를 귀중한 교훈으로 삼으면서 서서히 치료방법을 체계화해 왔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고대의학의 치료실험이나 인체실험의 양상에 관하여는 기록이 남겨질 수 없었기 때문에 알 길이 없다. 인체실험에 관하여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근대, 즉 18세기 이후이다.

18세기에 유럽에서 나타난 유토피론과 계몽주의는 19세기에 들어와서 의학적 사고에 근본적인 수정을 가하게 됐다. 근대 이전의 의학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의학을 계승하였고, 사람의 질병은 체액때문에 발생한다고 해석되었다. 특히 고대 로마의 의사 가래누스가 제창한 '체액병리설(體液病理說)'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유럽 의학을 주도하는 학설로 군림했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와서는 근대의학이 변창하고, 오랜 세월의 지배적 학설을 부정하고 질병의 원인이 체액이 아니라 인체를 구성하는 개개의 세포에 있다는 '세포병리학'이 대두하였다. 이와 같은 근본적 학설의 대전환은 산업혁명에 따른 여러 가지 기술이 의학에 응용됐기 때문이다. 예컨대 광학기술에 의한 현미경의 발달, 유기화학에 의한 염색법의 응용과 제약업의 등장, 의료기구의 개발 등이 세포병리학의 성립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투고



毛村 權五福(본지 편집위원)

“서예는 사람을 만드는 기초이자 바탕”이라고 한다.

먹을 갈고 붓을 들어 종이에 글을 쓰다 보면 차분해지고 끈기가 생김서 서예를 오래하다 보면 자연스레 선(禪)에 가까워진다. 이렇듯 “붓을 종이에 대면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 그러나 어느 순간 선경(仙境)에 이른 듯한 기분이 들게 된다.”

나는 어린 유년시절에 “둥네에서 개

소망(所望)

구쟁이였는데 붓만 잡으면 차분해지기도 했다.” 시골 앞집 감나무에 올라가 감을 따 먹고 막대기로 ‘소(牛)’를 찢러 괴롭히던 저를 모산마을 우리집 사랑방에서 야학(夜學)으로 마을 청년들에게 천자문(千字文)과 붓글씨, 작문(作文)을 가르치던 아버지(호 院堂)에게 불러 앉혀 붓글씨를 배우게 된 것이 서예(書藝)에 뜻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이 살아가는 과정에 서서 누구에게나 있는 것처럼 인생 희비쌍곡선에 의해, 나는 서예 외길을 걷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서예(書藝) 글자만을 온몸에만 새기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나이를 초월해 생의 연장, 젊은 청년으로서 ‘서예의 길’을 걷고자 하며 붓과 먹, 한지와 서체집을 준비해 앞으로 어느 시골 벽촌에 아담하게 토담집을 짓고 우주 대자연과 함께 숨쉬면서 ‘서성(書聖)의 길’인

무아지경에 빠지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가족으로 남매를 두어 귀여운 딸은 출가해 ‘제2의 삶’을 추구해가고 있으며 사랑하는 아들은 불행하게도 20여년 전에 병이 발해 치유(기적의 방법)으로 ‘신(神)’과 ‘하느님’, ‘기도’, ‘자연술’에서 찾고 있다.

청빈한 흙의 아들로 태어나 흙알의 소리로 광야에서 착하게 뿌린 씨앗을 어떻게라도 바로 세워놓고 가는 것이 인류의 철칙이 아닌가? 오늘도 하염없이 시공과 공간... 먼-허공을 바라보며 대답없는 메아리를 소리높이 외쳐본다.

그리고 언젠가는 소리없이 속세를 떠나 자연인으로 돌아가 나무와 함께 숨쉬고, 자라고, 늙어가면서 꽃의 풀잎에 한 방울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나의 ‘꿈’이요, 소망이다.

‘자치통감 산책’ 출간

〈도서출판 삼학 발행, 총 432쪽〉



무제에게 바른 말했던 동방삭 말 잘하는 무제에게 강연한 금암 장탕이 사용한 반소복비의 죄 애첩의 오빠를 위해 일으킨 전쟁 이간책, 그리고 아들을 죽게 한 무제



저자 권 중 달 중앙대명예교수

황제의 처남 음흉과 음식 망하는 사람과 흥하는 사람의 차이

· 내조와 외조? 관직명이 너무 어려워요! 스승의 대한 예우를 다하는 명제 복잡한 국제 관계에서 살아남을 방법 반초의 무역로 확보 전략

· 비단 팔러 가던 갈-실크로드 충신 정충을 죽게 한 외척 두헌 피의 보복을 반대했던 장포 [後漢 中期] 관직을 팔아먹은 황제, 권력을 전 환관

· 후한 중기에는? 관직을 팔아먹는 영제 · 제일 높은 중궁의 작위는? 환관의 전횡을 부른 잘못된 효심 세상에 나아갈 때와 아닐 때 환관이 세운 황제와 양자를 두게 된 환관

자사 주목과 영천의 네 현장 숨어보려는 은사들 태학생들의 청류운동 환관들이 요구한 기사란 무엇인가? 환관의 노복을 통해 자사가 된 명타

공권력으로 원한을 갚은 사람 황건적과 내통한 환관 10상시 [後漢 末期] 영웅들, 새 시대를 준비하다. · 후한 말기에는

난세의 영웅 조조 · 조조와 유비 그리고 손권의 세계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현재 부하와 백성에게 신뢰를 잃은 공손찬

조조의 피와 손권의 전략 앞날을 바라 본 역사가 손열 · 명이 <주역>에 있는 이야기라고요? 중장통의 창언

도를 잃지 않은 유비 황후도 지키지 못하는 현재 · 북 황후의 두 아들이 짐족으로 죽었어

요. 조조가 선양을 받지 않은 이유 [三國] 열린 시대가 시작되다 · 삼국시대에는

· 삼국시대의 황제표 선양을 받은 조비의 위나라

(다음호에 계속)

이 달의 시

현충원 낙화

사월 날 벚꽃은 한 떨기 바람에도 처절한 죽음을 위해 온몸으로 준비해왔고

멧비둘기 비행길에 덜 여문 햇살은 깃털 하나 떨어지는 돌비석 위에 머문다

붉은 꽃이여, 푸른 잎이여 용사가 바친 잎이여 언제, 파란 별이 그렇게 빛났던가

미리내 별 되려 살았던 것은 아닌데 존재를 모두 모아

영혼의 파편을 저 강에 진하게 흘뿌렸고 붉은 가슴에 점점이 내려앉은

핏빛 석양을 곱게 곱게 산화시켰다

하늬바람이 누런 창공에 머무는 것은 백일홍 피는 날까지 상처 남은 붉은 땅이 자유 위해 남기 때문인데

저 강에 또 꽃이파리 날린다.



청하 권 대 옥

1961년 경북 포항생/서울 거주, 39세신(九字돌림), 북아공 서주공계/영천신녕침판공지마 중도계, 계간 文藝地帶 詩부문 등단. 문화예술TV21 편집위원, 가래문학 사무국장한국문인협회(총랑) 회원, 시와 창작 작가회 동인, 시와 수성문학 동인, 소로문학 동인.

참된 행복

두 사람의 생각

를 냈습니다.

“세상은 왜 이리도 불공평한가? 한 사람은 청소부가 되서 푸대접을 받고 있단니?”

그러자 세익스피어가 그 청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도 하느님 보시기에 똑같은 사람이라네. 나는 글을 써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당신은 청소를 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할 뿐!”

어느 날 세익스피어가 식당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인사하며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때 청소하던 청년이 이 모습을 보고 빗자루를 던지며 화

안동권씨 별장공파총회 제24차 정기총회 개최

전국 안동권씨 별장공파친 여러분과 가정에 우리 파조님의 사랑과 도우심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아래와 같이 제2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꼭 참석하시어 새롭게 발전하는 파총회가 되도록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1년 4월 2일(토요일) 오전 11시
2. 장 소 : 안동시 옥정동 소재 안동회관 3층(안동세무서 맞은편) (전화:054-857-9555)
3. 안 건 : -, 결산보고
: -, 파총회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4. 기 타 : 당일 회비 없음(기념품 증정)

연락처 : 사무국장 권순창 (011-276-1896)

안동권씨 별장공파총회 회장 권 봉 도

자연과 사람들 우리 (주)금송은 자연과 인간의 하나됨을 지향합니다



(주)금 송 조 경
(주)금 송 환 경
권정섭나무한방병원

www.gumsong.co.kr
代表理事 / 院長 權 正 燮

- ▲ 조경수관리전문
- ▲ 방재 ▲ 방역
- ▲ 조경컨설팅
- ▲ 조경공사
- ▲ APT조경수 연간 관리전문
- ▲ 고사수목 소생 비료-금비- 수목에 모든 것

서울사무소 TEL : 02)846-2922 안양사무소 TEL : 031)466-292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83-26(2층) H.P : 016-799-9455 FAX : 031)466-2923

- 특 허 -

- 고사수목소생제 제0527101호 ● 수목용비료 제0537094호 ● 수목용비료제조공법 제10-0582681호 ● 살충제 및 그 제조방법 제10-0582684호
- 권정섭 나무한방병원 제41-0145323호